

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9월 16일(화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8월 중 PPI 전월과 동일, 근원 PPI 전월비 0.1% 증가
- 2) 미 노년층들도 대학 학자금 빚에 시달려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골드만삭스 5,000만달러 규모 '수쿠크' 발행
- 2) 중국, FDI 4년래 최저, 반독점 규제 강화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경쟁 내몰린 유럽 항공사들 파업 증가, 승객 불편 가중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8월 중 PPI 전월과 동일, 근원 PPI 전월비 0.1%증가

- 지난 16일 미 노동부는 8월 중 PPI가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다고 발표
 -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로 7월 PPI는 전월대비 0.1% 상승 한 바 있음
-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의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
- 한편,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8월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.1% 증가, 근원 PPI 역시 전문가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타남

2) 미 노년층들도 대학 학자금 빚에 시달려

- 지난 10일 AP통신은 학자금 대출 상환이 미국 노년층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
 - 지난해 미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이 부담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부채규모는 182억달러로, 8년전인 2005년의 28억달러에 비해 무려 600% 이상 급증
- 미 전체 대학 학자금 대출 부채(모든 연령층)는 1조달러로, 65세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있는 가구 수도 지난해 70만6,000가구인 것으로 집계
 - 미국의 노년층이 부담하는 학자금 대출 가운데 80%는 자신들이 학생 시절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것인 반면 나머지 20%는 자녀들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떠안은 경우인 것으로 알려짐

○ 미 노년층의 학자금 대출 연체율도 상승 중

- 전체 학자금 대출 가운데 25~49세의 대출 연체율은 12%에 불과한 반면 65~74세의 연체율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7%에 달함
- 또한 75세 이상이 부담하는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50%를 초과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골드만삭스 5,000만달러 규모 ‘수쿠크’ 발행

- 지난 16일 블룸버그통신은 미 대형은행 골드만삭스가 5,000만달러 규모의 수쿠크(이슬람 채권) 발행에 나섰다고 보도
 - 수쿠크란 이자 지급을 금지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 대신 배당금이나 부동산 임대료와 같은 우회적 방식으로 수익을 돌려주는 채권
- 골드만삭스는 5년 물 수쿠크를 미드스왑프 금리에 90BP(1BP=0.01%p)를 가산한 조건으로 발행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짐
- 전문가들은 오는 2018년까지 수쿠크 발행 규모는 현재보다 약 2배 증가한 34조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
- 한편, 지난 6월에는 영국 정부가 비 무슬림 국가 중 처음으로 수쿠크를 발행했으며, 홍콩 역시 1억달러 규모의 수쿠크를 지난주 발행한 바 있음

2) 중국, FDI 4년래 최저, 반독점 규제 강화

- 지난 16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8월 중 FDI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4% 감소한 7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로써 중국의 1~8월 누적 FDI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.8% 감소한 783억달러로 집계, 동기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(ODI) 규모가 15.3% 증가한 652억달러에 이른 것과 대조적인 결과
- 전문가들은 중국의 FDI 규모 급감이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
 - 마이크로소프트(MS), 쉘컴 등 다국적 기업들에 반독점 조사를 강행하고 일부 기업들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음
- 앞서 발표된 7, 8월 중국 경제 지표가 실망스러웠던 만큼 FDI의 급감은 중국 경제성장 목표 7.5%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에 더 힘을 실어줄 전망
- 한편, 8월 중 산업생산 증가율은 6.9%(전년동기대비)로 7월 증가율 9%와 전문가들의 예상 증가율 8.8%을 하회, 2008년 12월 이후 5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경쟁 내몰린 유럽 항공사들 파업 증가, 승객 불편 가중

- o 지난 16일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랑스가 60%의 항공 운행을 정지하는 파업을 이어가는 등 유럽지역 항공사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
 - 조종사 노조는 모회사인 에어프랑스-KLM이 에어프랑스 조종사 일부를 트랜스아비아로 배치하며 임금을 삭감할 뜻을 내비치자 이에 반대하며 파업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짐
- o 한편, 파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KLM네덜란드의 조종사들도 사태가 악화될 시 파업에 동참할 뜻을 밝혀 파업 사태가 네덜란드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
 - 독일에서도 국적 항공사 루프트한자의 조종사 노조가 16일 8시간 한시적인 파업을 단행할 뜻을 밝혔으나 이후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일단락 된 바 있음
- o 유럽 주요 국적 항공사들은 저가 항공사와의 경쟁과 걸프 지역 항공사들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구조조정과 사업모델 변화 등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
 - 이탈리아의 국적 항공사인 알리탈리아항공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적자난을 겪고 있는 핀란드의 핀에어도 지난달 비용 절감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
- o 한편, 에어프랑스-KLM의 주가는 지난 15일 3% 이상 급락한 바 있음